

“이젠 덥겠네” 7월 29일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음 8월 5일)

광주	24~30℃
목포	24~29℃
여수	23~28℃
전주	24~31℃
대구	23~31℃
부산	23~31℃
서울	22~29℃
인천	23~30℃
대전	24~29℃
대구	24~31℃
부산	23~30℃
제주	24~30℃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풍
파고 1.0~1.5m
서해남부 먼바다
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먼바다
남서~서풍
파고 1.0~1.5m

▲해돋이 05:39 ▲해질 19:39
▲달돋이 09:09 ▲달질 21:50

목포 밀물<04:42 썰물<09:59
여수 밀물<11:18 썰물<17:16

◇주간 날씨 기상인내전화: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일)	31(월)	8/1(화)	2(수)	3(목)	4(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4/32	24/31	24/32	24/32	24/31	24/32

태풍·홍수 비켜간 전라도 ‘신기하네’

태풍 극적으로 방향 바꾸고 ‘물폭탄’ 장마전선 중부권 머물러
풍수가 ‘호남정맥이 막아준 것’ 역술가 “올해 호남 기운 성해”

지긋지긋했던 올 장마가 27일 중부 지방의 폭우를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호남지방, 특히 광주·전남에 태풍과 호우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화젯거리가 되고있다.

광주·전남은 올 장마동안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때 완도와 여수·고흥지방이 피해를 입은 것을 제외하곤 사실상 풍수가 없게 지나갔다. 중부·영남지방에 쏟아진 ‘물폭탄’과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미안할 정도.

이에 대해 날씨를 총괄하는 기상청의 해석은 간단하면서도 솔직하다. “운이 좋았다”는 것이다. 광주지방 기상청 이준식 통보관은 “공기 움직임이

조금만 달라져도, 갑자기 변하는 게 날씨인데 올해 광주·전남은 대형재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비구름이나 태풍이 전부 피해갔다. 신기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 통보관에 따르면 제3호 태풍 ‘에위니아’는 당초 서해로 북상, 광주·전남이 태풍 중심의 오른쪽 반원에 위치해 큰 피해가 예상됐으나 태풍은 갑자기 진로를 바꿔 진도에 상륙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위력이 약한 왼쪽 반원에 들게됐고 강수량도 적었다. 반면, 영남과 강원엔 피해가 컸다.

엄청난 비를 뿌린 장마전선도 예년

의 경우 제주~남해상을 오르내렸지만 올해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장마전선을 위쪽으로 밀어올려 버렸다. 제4호 태풍인 ‘빌리스’가 엄청난 수증기를 한반도로 불어넣었지만 이때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걸쳐있었다. 제5호 태풍 ‘개미’ 때도 상황은 같았다. 결과는? 중부지방엔 ‘물 폭탄’이 쏟아졌다.

풍수가들의 의견은 약간 다르다. 호남대 미술과 진중주 교수는 ‘장풍(藏風·바람막이)’의 역할을 들었다. 전 교수는 “T자 형태의 ‘호남 정맥’(산맥)이 바람의 충격을 흡수하는 천연요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보성 일림

산, 존재산~고흥 팔영산~광양 ‘운산’에 이르는 한 줄기와 장흥 천관산~영암 월출산~해남 달마산으로 이어지는 다른 줄기가 T자 형태를 이루며 바람을 막는다는 것이다.

역술가들은 올해 호남의 기운이 성하다고 풀이한다. 병술년(丙戌年)인 올해 ‘병(丙)은 남쪽·태양·여름을 뜻하고 ‘술(戌)은 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쪽인 호남의 기운이 좋다는 것이다. 역술가 ‘지천명’(본명 최현덕)은 올해 ‘연주’(年柱·육십갑자)를 보면 “올해는 남서쪽의 기운이 좋다”고 했다. ‘천간병화’(天干丙火·하늘의 기운)가 따뜻하고 좋은 기운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비켜간다는 것. ‘지천명’은 “지난 태풍이나 장마가 그랬듯, 올해 광주·전남 지역은 큰 사고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비리 판·검사 변호사개업 제동

앞으로 비리에 연루돼 사직한 법관과 검사들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돼 법조비리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홍)는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와 관련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 또는 지휘·감독권자의



“소음 피해...공사 중단하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삼익2차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28일 오전10시와 오후4시, 두 차례 걸쳐 봉선동 이마트 신축현장 앞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니 10월 말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휘권자 확인서 등록때 제출 의무화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관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는 검찰청이 최종 근무지인 경우 검사 직무의 지휘·감독권자의 검찰총장, 법무부가 최종 근무지인 경우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 명의의 확인서를 내야 한다.

현행 변호사법 8조(등록거부)에도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거소투표용지 흠쳐 대리기표한 40대 집유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8일 거소투표 용지를 흠쳐 대리기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전남 영광축산업)씨에 대한 1심 선고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절도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거소투표자에게 특정 후보를 찍어줄 것을 당부한 뒤 대리기표를 한 또 다른 김모(여·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소투표자의 집을 방문해 투표용지를 절취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대신 기표한 행위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결혼 앞둔 30대 살신성인 해수욕장 익사위기 초동생 구하고 숨져

결혼을 불과 서너 달 앞둔 30대가 바닷물에 빠진 9살 초등학생을 구하고 자신은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 27일 오후 2시20분경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서양해수욕장에서 체중민(35·서울시 관악구 신검동)씨가 튜브를 탄 채 먼바다로 흘러가는 이모(9·진도군 임회면)양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것.

체씨는 이날 이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한걸음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안전선 밖까지 헤엄쳐간 그는 이양의 튜브를 잡고 해변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하지만 커다란 파도가 덮치면서 튜브를 놓쳤다.

뒤늦게 출동한 구조대는 이양을 구조했지만, 체씨는 끝내 찾지 못했다. 체씨의 사체는 사고 1시간 뒤 인근 해

안에서 발견됐다.

“경기도속” 정비사인 체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 목포에 살고 있는 둘째 형(38)의 집에 들러 하룻밤을 묵은 뒤, 이날 조카들에게 운림산방, 남도석성 등 문화유적을 보여주기 위해 진도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체씨는 여자친구와 올 가을에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씨의 여동생 염선(31)씨는 “오빠는 평소에도 성실하고 의협심이 강했다”면서 “하루 빨리 결혼해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다”며 오열했다. /진도=박현영기자 jngo@

반도체 기술 유출 교수·회사 임원 검거

비메모리 반도체의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중국으로 빼돌려 대량 위탁 생산하려던 반도체 회사 임원들과 현직 대학 교수가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특히 산학협력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연구소들이 기술 유출 ‘중간 기지’ 역할을 하고 회사 업무를 감독하는 사외이사

(56)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5월 같은 회사 기술 이사인 황모·김모씨에게 1사의 모터제어 반도체 3종의 복제품을 중국 C사를 통해 한국보다싼 비용으로 만들어 중국 시장에 팔자는 제안을 내렸다.

이 제안을 받은 황씨와 김씨는 과 교수에게 이 계획을 알렸고 박씨는 이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황씨 등이 퇴사하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대학 연구센터에 조교수로 채용해주기로 약속했다. /연남뉴스

돈 돌린 교육위원 후보 잇단 적발

광주시·전남도교육위원 선거가 이를 앞둔 다가오는 가운데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돈봉투를 건넨 후보자들이 잇따라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제2선거구(서구·남구·북구)에 출마한 김모씨와 오모씨가 지난 7월 초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건네다 적발돼 28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앞서 26일에는 광주 제1선거구(동구·북구)에 출마한 박모씨가 지난 7월 초 학교운영위원 한 명에게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25일에는 전남 3선거구에 출마한 김모씨가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10만~2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교육위원 선거인 명부 확정 광주 3,412명, 전남 8,116명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실시되는 제5대 시·도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인 1만1천528명(광주 3천412명, 전남 8천116명)의 명부를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확정된 선거인은 각 학교 운영위원들로 광주의 경우 남자가 2천167명, 여자 1천245명이며 전남은 남자 6천130명, 여자 1천986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지난 19일까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열람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광주 1명, 전남 10명이 감소했다.

광주·전남 선관위는 이와 함께 광주 5개, 전남 22개의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장소도 확정, 공고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풍암동 모녀 살인범 구속

광주 서부경찰은 28일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26·광주시 북구 용봉동)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40분께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양모(23)씨를 만나러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에 갔다가 양씨의 어머니 김모(여·50)씨와 딸다름 끝에 미리 구입한 흉기로 김씨와 여동생(15·중 2)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서 김씨는 “지난 5월부터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화끈에 위협당하려 했는데 저항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제이유 주수도회장 구속 정관계 로비 수사 착수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내주부터 수사팀 인력을 보강, 제이유그룹이 정관계 등에 광범위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제이유 그룹이 제주도와 강화도 등에 벌인 래저시설 건설사업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포착,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쫓고 있으며 주수도 회장(50)이 이 돈을 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사용처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날 구속된 주 회장은 27일 검찰 조사에서 “계열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방법을 통해 제이유 네트워크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연남뉴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전교조, 자유연대등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손상했다”며 신지호 자유주의연대대표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남뉴스

산부인과 의사 사칭 음란전화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한 40대 남자가 설문 조사를 핑계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28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한 40대 남성이 광주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모 교수를 사칭하며 “방금 출연에 앞서 자료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 부부관계 횡수와 느낌, 성적 만족도, 성관계 시 체위를 말해달라”고 했다는 것.

○경찰은 발신주체를 통해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한 모텔을 급습해 찾아낸 용의자 박모(40)씨의 투숙시간대 통화내용을 입수, 박씨가 21일 하루 동안 8통의 음란전화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조만간 박씨를 출석시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서 대량의 유사휘발유를 싣고 있던 화물차에서 불이나 소방관이 출동, 불을 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